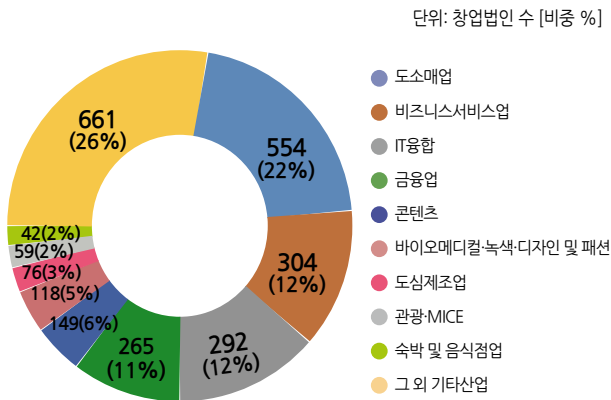


산업별 창업 동향

I 산업별 창업현황

- 2018년 7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,520개
-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554개, 비즈니스서비스업 304개, IT융합 292개, 금융업 265개, 콘텐츠 149개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 118개, 도심제조업 76개, 관광·MICE 59개, 숙박 및 음식점업 42개, 그 외 기타산업 661개가 창업
-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은 바이오메디컬, 녹색산업, 디자인 및 패션의 세 개 산업을 함께 묶어서 분석한 것으로 녹색산업 64개, 디자인 및 패션 42개, 바이오메디컬 12개로 구성
- 그 외 기타산업은 주요 9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(187개), 제조업(167개), 건설업(94개) 등이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 차지

[그림 1] 2018년 7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

I 법인창업지수 증감률(전년동월 대비)

-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03.0으로 (전년동월에 비해) 3.1% 감소
- 산업별로 봤을 때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과 콘텐츠 산업의 법인 창업은 (전년동월과 비교해) 급증
-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(28.3%)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콘텐츠(23.1%), 관광·MICE(7.3%), IT융합(2.8%)도 증가
-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감소폭이 크고 서울 법인 창업에서

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, 비즈니스서비스업, 금융업이 모두 감소한 것이 전체 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연속 감소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

-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-22.2%)이며, 그 외 기타산업(-10.9%), 도심제조업(-9.5%), 도소매업(-4.2%), 금융업(-2.2%), 비즈니스서비스업(-1.3%)도 감소
- 도소매업은 올해 4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7월 감소로 반전되었고, 비즈니스서비스업과 금융업은 6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
-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에서는 디자인업의 법인 창업이 증가했는데 구성 업종 중에서도 서인테리어 디자인업이 급증
- 큰 폭으로 감소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특히 음식점업의 법인 창업이 줄어들었는데 구성 업종 중에서 피자, 햄버거, 분식류, 스낵 등을 제공하는 기타 음식점업이 급감
- 그 외 기타산업(-10.9%)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감소
- 건설업(-22.3%)과 제조업(-20.5%)이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

[표 1] 2018년 7월 산업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